

백장암 3층 석탑 '기우뚱'

탑지발굴 통한 해체·보존처리 시급 제기

남원 실상사 백장암 3층 석탑이 심하게 기울어 안전문제와 보존처리가 시급하다. 백장암 3차 발굴조사 지도위원회는 6월 21일 백장암 현장에서 현재 조사중인 3층 석탑의 안전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김동현 한국전통문화연구소 석좌교수, 윤덕환 전북대 교수 등 지도위원들은 "발굴유구에 대한 수방(水防) 조치와 3층석탑의 구조안전 진단이 시급하다"며 탑의 안전에 우려를 표했다.



상륜부가 현저하게 기울어진 백장암 3층석탑

창건초기 토층이 2m 가량 아래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돼 현재 탑 위치는 제 자리가 아닐 가능성이 큰 데다, 탑의 구조적인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탑지 발굴과 탑의 보존처리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윤덕환 전북대 교수는 "이번 발굴이 학술적 성격과 아울러 탑의 안전과 연관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석탑의 훼손상태가 심각하고, 기울어 있어 해체를 통한 보존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동현 교수는 "구조안전진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박경식 단국대 교수 또한 "탑이 기울고 접합부에서 균열이 나타나 보존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현 교수는 "구조안전진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발굴조사를 이끌고 있는 최재선 책임연구원(중앙승가대 교수)은 "제대로 된 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탑지 조사가 필수"라고 말했다. 주지 진웅 스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탑지를 발굴해 탑의 안전한 모습을 찾고, 정비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원=박익순 기자

미륵사지석탑 해체·복원 어떻게?

'부분복원과 보존' 안에 무게

"국보 제11호 미륵사지석탑(서탑)을 어디까지 해체하고, 어떻게 복원하냐?"

현재 2층까지 해체조사가 완료된 미륵사지석탑의 해체 범위와 복원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가 심포지엄을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눴다.



2안에 따른 미륵사지석탑 복원조감도

윤홍로 문화재위원, 이상해 문화재위원, 박경식 단국대 교수, 조성룡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6월 17일 경북 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미륵사지석탑 해체 및 복원 심포지엄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측은 해체범위와 복원방법의 안을 제시했다.

배병선 건조물연구실장(국립문화재연구소)은 "1층은 미륵사지석탑 원형이 남아있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보존해야 하지만 반이 약하고 1층부의 변위가 심해 해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1층 해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사업단은 △석축단 해체한 후 정비 △1층 초석 상부까지 해체 △지반까지 완전히 해체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홍로 위원과 박경식·교수

등은 석축(석탑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석부재로 보강한 석축)만 해체하는 것은 해체의 의미가 없으며, 1층 초석상부까지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해체범위보다 더 미륵사지석탑보수정비사업단을 손꼽아 언급하는 것은 복원 방법, 사업단 등의 의견이다. ▲해체 전 형태의 복원 (1안, 구조를 안정화시킨 뒤 적절한 보강물로 석축을 지탱하도록 하는 것) ▲부분복원과 보존(2안, 형태 추적이 가능한 부분은 복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것) ▲안전 복원(3안, 상륜부까지 형태를 안전하게 갖추는 것)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2안을 취할 경우 6층까지, 3안의 경우 9층까지 복원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성우 문화재위원(연세대 교수)과 강찬석 문화재전문위원(문화연대)은 백제당시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부분복원과 보존' 안을 지지했다.

또 이상해 문화재위원(성균관대 건축학과)은 "고고학적·건축학적 증거가 부족하면 미래를 위해 복구처리를 유보해야 한다"는 말로 선부분 보수를 경계했다.

박익순 기자



지금, 우리 삶에서는...

하남 관음사

차별된 아이템으로 승부



생활기공체조로 지역포교에 나서고 있는 관음사 주지 일학 스님의 지도로 광주 축협 조합원들이 생활기공체조를 하는 모습

하남시 덕풍동 다세대주택이 밀집돼 있는 주택가의 북쪽에 있는 하남 관음사(주지 일학). 일반주택을 개조해 사찰로 운영하고 있는 이곳 관음사가 생활기공체조로 지역포교에 나서 눈길을 끈다.

생활기공체조가 지역포교 방편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주지 일학 스님이 오면서부터다. 지난해 10월 관음사에 온 일학 스님은 신도가 거의 없는 관음사를 되살리기 위해 20여년간 기공수련을 해 온 독특한 이력을 활용하기로 마음 먹은 것.

하남시 덕풍동 다세대주택이 밀집돼 있는 주택가의 북쪽에 있는 하남 관음사(주지 일학). 일반주택을 개조해 사찰로 운영하고 있는 이곳 관음사가 생활기공체조로 지역포교에 나서 눈길을 끈다.

관음사 공양주보살인 김정덕(74세) 친구 따라 불공을 올리러 관음사에 왔던 강보살은 기공수련을 시작한 이후 하루가 다르게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아예 관음사에 머물게 됐다. 이제 겨우 한달이 지났을 뿐인데 어깨와 무릎의 관절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했다.

이제 관음사는 인근 지역민의 안식처 같은 도량으로 자리잡아가는 성장을 바탕으로 점차 포교영역을 넓

외에도 기공으로 다져진 내공을 활용한 열불도 견인차 역할을 했다.

관음사 공양주보살인 김정덕(74세) 친구 따라 불공을 올리러 관음사에 왔던 강보살은 기공수련을 시작한 이후 하루가 다르게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아예 관음사에 머물게 됐다. 이제 겨우 한달이 지났을 뿐인데 어깨와 무릎의 관절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했다.

이제 관음사는 인근 지역민의 안식처 같은 도량으로 자리잡아가는 성장을 바탕으로 점차 포교영역을 넓

생활 기공체조·염불로 지역포교에 진력

전문수련원 건립, 참선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자주 몸이 아파 구전으로 내려온 불가의 기공수련을 시작한 일학 스님은 "몸이 병들면 그때부터는 삶 자체가 지옥이 된다"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기공체조를 알리는 것은 효과적이고 포교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지는 생활기공체조가 통할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하지 않았지만, 부인 8개월을 맞는 스님은 놀랄만한 포교 성과를 이뤄냈다. 광주 축협 조합원 50여명으로 만들어진 생활기공체조반과 서울대병원 유방암 환우회를 지도하게 됐고, 하남시청과 광주시청, 서울 서초구청과도 협의를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일학 스님의 정성어린 지도

하고 있다. 이계준 신도회장이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목양리에 갖고 있던 2만여평의 땅을 수련원부지로 제공하면서 기공수련을 전문으로 하는 수련원 건립 계획이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일학 스님은 "용도변경이 마무리되는 10월부터 수련원 건립불사가 시작된다"며 "100평 규모의 수련원 겸 법당을 가장 먼저 지어 기공수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공수련의 중심도량으로 우뚝 설 관음사를 볼 날도 멀지 않은 듯하다. (031)794-2979

하남=박봉영 기자

극빈층에 최상의 서비스를

여수 석천사 무료 노인요양시설 '하얀연꽃' 준공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됐으면서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노인들을 위한 국내 최초 무료 노인전문 요양시설 (사진)이 불교계 주도로 건립됐다.

여수 석천사(주지 진욱)는 무료 노인요양시설 '하얀연꽃'을 착공한 지 4년 만에 공사를 마치고 8월 9일 오후 2시 준공법회를 갖는다. '하얀연꽃'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을 위한 요양시설로 사업비

35억원 가운데 30억원을 자체부담한 순수 불교복지기관이다.

여수시 돌산읍 계동 바닷가 4000여평의 대지에 자리한 요양전문시설인 '하얀연꽃'은 연건평 720평 규모의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여수에는 차상위층 노인 3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하얀연꽃'에서 100여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요양시설은 2-5인실 주거공간 50여개와 복욕탕,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등 현대화된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소 대상자는 기관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운데 정부나 지역사회,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10월경 본격적인 입소가 시작된다. 061)644-8877 www.scsa.com 이준엽기자

김제 청운사 하소백련 축제



'백련, 빛과 색'을 주제로 하는 김제 청운사(주지 도원)의 하소백련 축제가 시작했다. 올해로 4회째 맞는 하소백련 축제는 6월 25-26일 양일간 차 명상, 아산법계 작법무, 예과도르담 시사이, 인디안 스포릿 등의 공연과 퍼포먼스 등을 시작으로 7월 17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청운사는 무량광전을 건립하고 6월 23일 아미타불 점안법회를 봉행(사진)했다. 불교 전통의식으로 진행한 이날 주불인 아미타불에 생명을 불어넣는 복장과 점안식으로 이어졌다. 25일 낙성식을 봉행한 무량광전은 부처사 무량수전의 배흘림기둥을 본따 고려시대 사찰 건축 양식으로 조성됐다. 063)543-1248 이준엽기자

광주 동부경찰서 경승 위촉

광주 동부경찰연합회 소속 사찰 주지스님 5명이 경승단을 구성하고 6월 10일 동부경찰서장실에서 경승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서 진화(중심사), 석장(문법정사), 한운(약사암), 시공(만경사), 정선(대광사)스님이 윤재관 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경승 위촉장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동부 경찰서 경승단은 경찰서 임직원과 유지인들을 위한 정기법회와 대민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준엽기자

교도소불자회 대성사서 법회

청주여자교도소 불심회(회장 노순천)가 6월 18일 옥전 대성사에서 '불자의 바른 삶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첫 사찰 법회를 개최했다. 청주여자교도소 직원 불자회인 불심회는 청림후 법회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최근 옥전 대성사 주지 해철 스님의 지원으로 매월 정기 법회를 봉행할 수 있게 됐다. 불심회는 앞으로 대성사와 공동으로 불교모임 활성화, 지역 농산물 공동구매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용수기자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

골굴사·선무도 대금강문에서는 청소년 및 일반인을 위한 선무도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절제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태해지기 쉬운 방학생활이나 휴가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 대안교육의 새 지평'이란 평가를 받은 선무도의 수련을 통해 평소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며 화랑의 호연지기를 맛보도록 건강하며 활기찬 삶, 화합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삶을 배워 익힐 수 있습니다. 주말과 휴가를 이용한 일반인 템플스테이는 년 중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 제 : 하계 - 7월 ~ 8월 (2달간) ▶ 모집 인원 : 수시모집 (1주, 2주, 한달) ▶ 대 상 : 초등학생이상 개인 및 단체
* 동참금은 청소년-1일 2만, 한달 60만원, 성인-1일 3만, 1개월 65만원이오니 아래 계좌로 송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를 하셨더라도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확정이 안되오니 미리 해당계좌로 입금바랍니다.
농업 721107-52-037300 (예금주 : 설기춘 골굴사)

수련내용

1. 일반수의 수행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불교한문, 전통문화(판소리, 활쏘기, 다도)
 2. 기림사, 감은사지, 장항사지, 동해 문무대왕릉 등의 성지순례
 3. 주지스님의 초발심사경문과 부모은중경 강의를 통해 심성정화 및 한문공부
 4. 매일 영여 회화를 원어인(외국인 행사님)이 지도합니다. (해의 연수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 * 지도진 : 스님·사범 등 10명, 판소리강사 1명, 다도강사 2명, 영여강사 1명
* 준비물 : 개인 세면도구·필기도구·우산·운동화·운동복 등
* 접수 및 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홈페이지 : www.sunmudo.com

일 과 표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4시	기상, 예불	13시	독서와 사색
5시	좌선	14시	오후수련(학생)
6시	조깅, 등산	15시	전통문화 감상(학생)
7시	아침 공양(발우 공양)	16시	올력 (도량청소 및 정비작업)
8시30분	불교 강의	18시	저녁 공양
9시	오전 선무도 수련	19시	예불, 자율학습 및 참회(학생)
11시	108배 참회기도, 자아를 향한 서원	19시30분	저녁수련(일반인)
12시	점심 공양	21시	점호 및 취침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 선무도 대금강문·선무도 대학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NSF-ISO9001 HACCP인증 3억원 생산물 배양액인쇄형 생장배양액제조업자회사

심봤다!

제2의 산삼

심마니 토종오가피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서에서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실험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종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등 자사 직영 현풍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 기준 HACCP 인증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풍F&B 02)455-1114
HYUN PUNG F&B CO.LTD